

일제강점기 손진태 채록 부산지역 민요의 성격과 의의*

박 경 수**

| 목 차 |

- I. 들머리
- II. 손진태 채록 부산지역 민요 자료의 검증
- III. 손진태 채록 부산지역 민요의 성격과 의의
- IV. 마무리

| 국문초록 |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손진태(1900~1960년대 중반)가 조사, 채록한 부산지역 민요 자료들을 여러 문헌에서 찾는 작업을 한 후, 이들 부산지역 민요 자료가 갖는 성격과 의의를 고찰하는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다. 손진태가 조사, 채록한 부산지역 민요 자료는 ① 문예지 『금성』(1924. 1~2)에 ‘손중자(孫重子)’란 필명으로 발표된 14편, ② 김소운이 편찬한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에 수록된 83편, ③ 미 발표 유고 원고 수록 민요 자료 50편, ④ 민요론에서 인용된 민요 자료 17편 등으

* 필자는 이 글의 주요 내용을 한국민요학회 제65차 전국학술발표대회(2019. 2. 23)에서 <남창 손진태 조사 민요의 성격과 의미>란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발표문을 ‘부산지역 민요’에 초점을 두고 재정리, 수정한 것임을 밝혀둔다.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교수 / kspark@bufs.ac.kr

로 전체 164편이 된다.

손진태가 조사, 채록한 부산지역 민요는 대부분 1922년 8월부터 1931년 4월 이전까지 걸쳐 있다. 이들 자료는 당시 부산지역 민요의 전승 국면과 특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이며, 대부분 손진태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손진태의 민요 채록 방식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앞선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방언 그대로 채록한 점, 음보를 구분하여 정연하게 채록한 점, 방언이나 어려운 어휘에 주석을 붙인 점, 제보자를 명확하게 밝힌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손진태가 조사, 채록한 부산지역 민요 자료는 또한 당시 ‘동래군 구포’에서 주로 채록한 것들이다. 이들 중에서 <모심기 노래>는 1920년대 초반 전승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며, <아리랑>은 일제강점기의 세태를 흥미롭게 반영하고 있는 노래로, 일명 ‘구포아리랑’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장타령>과 <각설이타령>도 구포를 둘러싼 지역의 장소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민요로 역시 ‘구포 장타령’과 ‘구포 각설이타령’으로 부를 수 있다. ‘개지랑이’로 채록된 <캐지나칭칭나네>도 경상도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로 당시 부산지역에서 불린 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래로 주목된다.

주제어 : 손진태, 부산지역 민요, 장소애, 장소성, 모심기 노래, 아리랑, 장타령, 각설이타령, 민요 전사 방법, 동요, 부요

I. 들머리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손진태(1900~1960년대 중반)¹⁾가 조사한 민요 자료들을 여러 문헌에서 찾아 학계에 새롭게 알리는 한편, 해당 민요 자료가 대부분 부산지역에서 조사한 민요 자료라는 점에서 이들 민요 자료가 갖는 성격과 의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다.

손진태는 부산 출신의 민속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1900년 12월 28

1) 최광식,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활동』, 『역사민속학』 11, 2000, 21~27쪽 참고.

일 당시 경상남도 동래군 사하면 하단리(현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해일로 집과 어머니를 잃고 양산군 좌이면 남창리²⁾(현 부산광역시 북면 구포1동 남창마을)로 이사를 와서 열두 살까지 살았다. 남창마을은 손진태가 유년시절을 보낸 마을로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이다. ‘남창(南滄)’³⁾이란 지명을 호로 삼은 연유도 유년시절을 보낸 지역에 대한 장소애(Topophilia)⁴⁾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이런 장소애는 손진태의 민속학을 이루는 학문적 출발점이자 토대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본다. 후술하겠지만, 손진태의 민속학 내지 구비문학의 중요한 터전이 바로 남창마을이 있던 구포지역, 더 넓게는 부산지역이다. 손진태가 남긴 무가, 설화 자료 중 상당수와 민요 자료들 대부분이 부산의 구포지역에서 채록한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손진태의 민속학 내지 구비문학은 지역 또는 장소(place)를 통한(through) 학문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손진태가 이룬 업적들은 『손진태선생전집』(전6권, 1981),⁶⁾

-
- 2) 양산군 좌이면은 1910년 부산부 좌이면이 되었다가 1913년에 동래군 구포읍, 1914년에 동래군 구포면으로 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창리는 구포리가 되었다.
 - 3) 손진태의 호인 ‘남창(남창)’이 자신이 태어난 하단리의 마을에서 비롯된 것으로 잘못 기록한 글이 많다. 최광식, 앞의 글, 21쪽에서도 “경남 동래의 하단 남창마을에서”라고 잘못 기록하고 있다. 이후 손진태의 생애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이 최광식이 기록한 오류를 되풀이하고 있다.
 - 4) 장소애(Topophilia)는 투안(Y. F. Tuan)이 쓴 저서 Topophilia, Prentice Hall Inc, 1974에서 비롯된 용어로 보통 ‘장소애’로 번역되는데, 사람이 장소(topo, 땅)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philia, 사랑)를 의미한다. 심승희, 「장소 개념의 스택트럼과 잠재력」,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013, 87쪽.
 - 5) 심승희, 위의 글, 95쪽.
 - 6) 이기백 편, 『손진태선생전집1~6』, 태학사, 1981. 이 책의 1권에 『국사대요』(1948), 『우리민족의 걸어온 길』(1948), 『한국민족사개론』(1948), 2권에 『조선민족문화의 연구』(1948), 『조선민족설화의 연구』(1947), 3권에 『조선민담집』(일문, 1930), 『명엽지해(冥葉志諧)』(일문, 1932), 4권에 『조선고가연구』(일문, 1930), 5권에 『조선고가요집』(일문, 1929), 『조선무격의 신가』(1935, 1937), 6권에 『한국민속문화산고』와 『한국상고문화의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전3권, 2002, 2007),⁷⁾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⁸⁾으로 여러 차례 정리되어 집대성되었다. 한국의 민속, 구비문학, 역사, 문화사에 두루 걸친 손진태의 이들 저술들은 ‘손진태학’⁹⁾으로 명명되기도 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손진태의 학문적 독자성과 세계관을 파악하려는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손진태의 민속학, 구비문학, 국문학에 관한 연구들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필영은 손진태의 민속학을 ‘역사민속학’으로 규정한 바 있으며,¹⁰⁾ 류기선과 남근우는 손진태의 일본 와세다대학 수학과정과 이후 동양문고에서의 연구과정을 통해 손진태 학문의 성립 배경을 밝히고자 했다.¹¹⁾ 황인덕은 손진태가 수집 정리한 무가와 설화 자료들이 갖는 성격을 ‘현지성’을 중시한 중요한 성과로 강조하는 한편 손진태의 설화 연구가 역사적 교류에 기반을 둔 비교문화적 관점, 민속학적 관점, 민족심리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진행됨으로써 국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¹²⁾ 홍홍구는 손진태의 여러 저술 중에서도 『시조와 시조에 표현된 조선 사람』(『신민』 제15호, 1926. 7)과 『조선의 동요와 아동성』(『신민』 제22 1927. 2)을 특히 주목해서 논의하면서 손진태가 사설시조의 전통과 풍자민요를 중시한 태도를 통해 식민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 각성이 민중문화 지향적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¹³⁾ 이수자는 손진태의

7) 최광식 역/편, 『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전3권)은 고려대학교박물관에서 2002년에 1, 2권을, 2007년에 3권을 출간했다. 제1권은 최광식 역, 『조선상고문화의 연구』(2002), 제2권은 최광식 편, 『우리의 민속과 역사』(2002), 제3권은 최광식 편, 『우리나라의 문화』(2007)로 간행되었다.

8) 최광식 엮음,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 지식산업사, 2012.

9) 남근우, 「‘손진태학’의 기초연구」, 『한국민속학』 28, 1996, 85~121쪽.

10) 이필영,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의 성격」, 『한국학보』 41, 1985, 173~202쪽.

11) 류기선, 「1930년대 민속학 연구의 한 단면 - 손진태의 ‘민속학’ 연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 1995, 57~80쪽과 남근우, 앞의 논문, 1996.

12) 황인덕, 「손진태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2, 1995, 293~321쪽.

구비문학 저술들을 전반적으로 개괄한 후에 1920~30년대의 무가와 설화를 파악하는 데 매우 요긴한 자료들로 선구적인 업적들을 자료사적 가치, 현지조사방법상의 중요성, 인식론적 연구와 비교연구의 의의 등을 들어서 매우 높이 평가한 바 있다.¹⁴⁾

손진태의 민속학 내지 구비문학에 관한 저술들은 전집과 유고집으로 잇따라 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무속, 무가, 민간신앙, 설화에 관한 저술들은 거의 발굴, 정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민요 관련 저술들은 아직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사정에서 손진태의 민속학과 구비문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무속, 무가, 민간신앙, 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손진태가 이런 민요 자료들과 관련 글들을 가능한 대로 찾아서 논의하는 일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손진태의 구비문학, 나아가 민속학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에 이를 수 있고, 그의 학문적 토대와 방향성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손진태가 조사, 채록한 민요 자료들을 부산지역 민요 자료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학계에 구체적인 실체를 알리는 한편 부산지역 민요 자료들이 갖는 성격과 의미를 본격 파악하고자 한 처음의 글로서 의의를 가진다.

II. 손진태 채록 부산지역 민요 자료의 검증

손진태가 조사, 채록한 민요 자료들은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다. 그동안 찾은 손진태 조사 민요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3) 홍흥구, 「남창 손진태의 국문학 연구」, 『한국어문연구』 10, 1997, 177~190쪽.

14) 이수자, 「구비문학 연구의 성격과 의의」, 『역사민속학』 11, 2000, 107~125쪽.

- ① 문예지 『금성』(1924. 1~2) 수록 민요 자료
- ② 김소운 편,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 수록 민요 자료
- ③ 미발표 유고 원고 수록 민요 자료
- ④ 민요론에서 인용된 민요 자료

이상 네 가지 경우의 민요 자료들이 모두 손진태가 직접 조사, 채록한 것들이라고 쉽게 말하기 어렵다. ①의 민요 자료는 손진태의 이름이 채록자의 이름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더구나 문학작품이 중심인 문예지에서 해당 민요 자료는 목차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문예지의 부족한 지면을 채우듯이 민요 자료가 들어 있다. ②의 민요 자료도 김소운이 편찬한 민요집이 주로 『매일신보』의 독자 투고 민요 자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수록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찾을 수 있다. ③은 손진태의 유고 원고로 남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고집이 발간되기 이전에는 알기 어려웠다. ④의 민요 자료는 민요론을 잘 읽고, 인용된 민요 자료를 기존 민요집의 수록 자료와 일일이 대조하는 노력을 해야 손진태 채록 민요 자료인지의 여부가 판별될 수 있다.

1. 『금성』(1924. 1~2) 수록 민요 자료

문예지 『금성』에 발표된 자료들은 각편을 기준으로 모두 14편인데, ‘동래 손중자(孫重子)’가 기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동래는 당시 손진태의 본가가 있던 ‘동래군 구포’를 지칭하며, 손중자는 손진태의 필명이거나 손진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손중자가 손진태 자신이든 밀접한 관계의 인물이든 해당 민요 자료를 올린 본인은 손진태로 보인다.

당시 『금성』 동인들 중에서 설화와 민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이가

손진태인데,¹⁵⁾ 1923년 5월 1일 조직된 방정환 중심의 색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어린이』지 등에 ‘역사동화’를 쓰는 등 설화와 민요를 바탕으로 아동문학 활동을 전개했다.¹⁶⁾ 『금성』지도 손진태에겐 이런 활동을 펼치는 중요 지면이자, 청년기 문학창작의 욕망도 펼쳐 보이는 무대로 기능했다. 『금성』지만 살펴도 시 9편, 동시 6편, 소설 1편, 번역소설 1편을 게재할 정도로 적극적인 창작 활동을 펼쳤다. 『금성』 동인들은 중등학교(2년, 1921년 졸업) 동문들이거나 일본 와세다 제1고등학교 또는 와세다대학에 유학중에 있던 양주동, 유춘섭, 백기만 등으로 1923년 관동대지진을 겪고 귀국하여 문예지의 발간에 의기투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평소 설화와 민요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손진태가 당시 동래군 구포지역에서 불린 민요를, 창작이 아닌 민요를 기고 형식으로 올리면서 필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성』 제2호(1924. 1)에 게재된 민요는 <새는 새는>, <아해 재우는 노래>, <비야 비야> 등 동요¹⁷⁾ 3편과 부요인 <식집사리> 2편이다. 손진

15) 『금성』 제3호(1924. 2), 90쪽의 ‘동인 소식’란에서 손진태를 “조대문과(早大文科)에서 영문학(英文學)을 전공 한편으로 원시사연구중(原始史研究中)”으로 소개하고 있다. 설화와 민요는 원시사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성』지에 민요를 수록한 장본인이 손진태로 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16) 박경수,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항도부산』 28, 2012, 138~143쪽에서 손진태가 『금성』지와 『어린이』지 등에서 펼친 아동문학 활동을 논의한 바 있다.

17) ‘동요’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동요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동요를 가창하는 주체를 어린이로 한정하면 <아기 어르는 노래>나 <아기 재우는 노래> 등이 동요에서 제외되지만, 동요를 어린이가 부르는 민요 외에 어린이를 위해 부르는 민요를 포함하면 이들 민요도 동요의 범주에 포함된다. 아동문학에서 동시와 성인시를 구분할 때 ‘어린이를 위해’ 성인이 짓는 시도 포함하여 동시의 개념을 정의하는 점을 동요의 개념 정의에도 적용할 수 있다. 손진태의 동요론을 보면 어린이를 위해 부르는 노래도 동요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손진태는 부요를 논의하는 글에서는 <아기 어르는 노래>나 <아기 재우는 노래>를 부요로서 인용하고 있다. 손진태의 경우, <아기 어르는 노래>와 <아기 재우는 노래>는 동요이면서 부요이다. 이 글은 손진태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진행되는 것임을 밝혀 둔다.

태가 처음 올린 민요 자료가 동요와 부요인 점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손진태의 민요에 대한 중요 관심사가 동요와 부요를 대상으로 집중 피력되었다¹⁸⁾는 사실과 연결되기 때문이고, 실제 위의 민요 자료들이 손진태의 민요론 속에 거의 같은 모습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손진태가 일본에서 『短歌雜誌(단가잡지)』 제9권 제2호(1926. 2)에 발표한 「朝鮮の童謠と子供(조선의 동요와 어린이)」와 동 잡지 제9권 5호(1926. 5)에 발표한 「朝鮮婦謠(조선의 부요)」에 위와 같은 민요 자료들이 구체적인 논의 대상으로 올라 있다.

『금성』 제3호에는 <등지(移秧歌)>, 즉 <모심기 노래> 9편이 수록되어 있다. 9편밖에 되지 않는 자료이지만, 일반적으로 아침소리, 점심소리, 저녁소리로 구분되어 불리는 모심기 노래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 채록하고 있다. 그리고 “노래의 一節一節은 서로 獨立하여 있고, 한 節 가운데. 첫재들은 「주는 노래」이요, 둘째재들은 「받는 노래」이올시다. 이 노래는 男女를 勿論하고, 합씨 부르는 노래입니다.”라는 해설을 붙여서 모심기 노래가 한 줄씩 주고받는 남녀 공동의 교환창으로 불린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 민요 자료는 1920년대 초기 널리 불린 <모심기 노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진태가 모심기 노래를 포함한 농업노동요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알게 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처럼 『금성』 제2호(1924. 1)와 제3호(1924. 2)에 수록된 ‘동래 손중자’ 기고의 민요는 모두 당시 구포지역에서 불렸던 민요 자료들이며, 비록 제한된 민요 자료들이지만 1920년대 초기 불렸던 구포지역 동요와 부요, 그리고 모심기 노래의 일단을 파악하는 데 요긴한 자료들이다.

18) 손진태의 전집과 유고집에 누락된 이들 글을 김광식이 찾아서 학계에 알렸다. 김광식, 「시즈미 효조(清水兵三)의 조선 민요·설화론에 대한 고찰」, 『은지논총』 28, 2011, 75~76쪽.

2. 김소운 편,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 수록 민요 자료

김소운이 편찬한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¹⁹⁾에는 손진태가 직접 채록한 민요 자료들이 상당수 들어 있다. 손진태가 직접 채록한 민요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경상남도 부산’ 민요로 <오륙쫓룩>부터 <방구> 2편까지(수록번호 889~907번) 19편, ‘전라북도 임실’ 민요로 <상여(喪興)노래> 8편(501~508번)과 <농부가(農夫歌)> 14편(509~521번)을 합친 22편으로 모두 41편이다. 전자의 ‘경상남도 부산’ 민요로 들어있는 자료도 손진태가 ‘동래’에서 채록한 것이고, ‘전라북도 임실’ 민요도 ‘동래군 구포시장’에서 임실 출신이며 62세 앵금쟁이 맹인인 오운선(吳雲善)으로부터 손진태가 채록한 것²⁰⁾임을 밝히고 있다. 민요 조사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당시 동래군 구포인 부산지역에서 조사된 민요 자료들이다.

김소운이 편찬한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손진태가 올린 자료가 41편에 한정되지 않는다. 김소운은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자료에 대해 『매일신보』 학예면의 독자 투고를 통해 취득한 것이 태반이고, 자신이 일본어로 번역하여 엮은 『조선민요집』(1924~1929년 채집)에 수록한 민요 자료와 “이삼(二三) 지우(知友)의 노력(努力)으로 된 자료(資料)”를 함께 모은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²¹⁾ 그리고 서문 뒤에 “외우(畏友) 다나카 하츠오(田中初夫) 손진태(孫晉泰) 양씨(兩氏)의

19) 김소운 편, 『언문조선구전민요집』, 제일서방, 1933.

20) 손진태, 『朝鮮神歌遺篇(조선신가유편)』, 동경: 향토문화사, 1930에 1922년 8월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 석씨(石氏) 무녀’와 1925년 12월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 최순도(경남맹인조합장)’으로부터 채록한 무가가 들어 있고, 유고 원고인 『조선 무격의 신가(神歌)』에는 1922년 8월 ‘동래군 구포면 무녀 한순이’로부터 채록한 무가, 1931년 8월 ‘동래군 구포 맹인 최순도’로부터 채록한 무가가 기록되어 있다. ‘동래군 구포시장’에서 오운선으로부터 채록한 민요는 1931년 8월 맹인 최순도를 재차 만나 무가를 조사할 때 채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21) 김소운 편, 『서(序)』, 앞의 책(『언문조선구전민요집』).

자료(資料)에 관(關)한 노력(努力)을 감사(感謝)하여마지 않는다”고 적었다.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을 원본으로 동요를 선별하여 일문으로 펴낸 『朝鮮童謠選(조선동요선)』의 후기에서는 “경성사범의 교우인 다나카 하츠오(田中初夫) 씨가 학생들로부터 채집한 자료 일부와 손진태(孫晉泰) 씨의 노트에서 가져온 100수, 총독부 도서관과 김지연(金志淵) 씨가 제공한 40수 등을 합쳤다”²²⁾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를 참고로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을 살펴보면, 실제 다나카 하츠오(田中初夫) 씨가 학생들로부터 채집한 자료와 김지연이 제공한 40수의 민요 자료가 ‘보유’ 편의 경기도와 경상북도 민요로 주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²³⁾ 손진태의 경우도 위에서 언급한 ‘경상남도 부산’과 ‘전라북도 임실’ 민요를 통해 41편이 확인되지만, 김소운은 손진태의 노트에서 가져온 민요 자료가 100수나 된다고 했다. 손진태가 직접 채록했다고 밝힌 41편 외에 손진태의 노트에서 가져온 민요 자료가 추가로 있음을 말한 것이다.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을 잘 살펴보면, 손진태가 채록한 민요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자료 외에 추가로 더 찾을 수 있다. 우선 손진태 채록 자료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것은 이필남(李必南)이 제공한 것으로 기록된 ‘경상남도 동래’의 민요 자료들이다. <농요(農謠)> 20편부터

22) 김소운 역편, 『後記(후기)』, 『朝鮮童謠選(조선동요선)』, 암파문고, 1933.

23) 다나카 하츠오(田中初夫) 씨가 학생들로부터 채집한 자료는 ‘보유’ 편에서 경기도 민요를 채집한 이들로 기록된 최봉진, 장기정, 박운용, 위창환, 신용성, 정기준, 이순남, 이한영, 서병락, 윤형식, 변인기, 이철호, 안종연, 곽인환, 조남윤, 이의갑, 황인섭, 김종태, 정철근, 곽병하 등으로 추정된다. 김지연이 제공한 민요 자료로는 ‘보유’ 편의 경상북도 민요로 <분꽃 나팔> 1편(2217번)부터 <돌너라> 1편(2244번)까지 28편이 확인된다. 김소운이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을 편찬할 때 채록한 자료를 제공한 이들로 서문이나 후기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들로 김종환(金鐘煥)과 정인섭(鄭仁燮)이 주목된다. 김종환이 경상남도 창원에서 채집한 민요로 <농요 92편> 등 166편(1118~1284번)이 수록되어 있고, 정인섭이 울산에서 채록한 민요가 ‘보유’ 편의 경상남도 민요로 95편 올라 있다. 앞으로 김종환과 정인섭의 민요 조사 성과에 관한 논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風)> 1편까지(944~966번) 모두 23편이다. 이필남이 제공한 민요 자료가 손진태가 채록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손진태가 국문본과 일문본으로 남긴 유고집의 설화 자료²⁴⁾에서 찾을 수 있다.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이 구술한 설화가 손진태의 국문본 유고 설화 자료로 총 12편,²⁵⁾ 일문본 유고 설화 자료로 총 28편²⁶⁾ 확인된다. 설화를 구술한 시기를 보면 1930년 11월, 12월과 1931년 1월, 2월, 4월로 5회에 걸쳐 이필남 제보자로부터 설화 구술을 들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서 이필남이 제공한 23편의 민요는 손진태가 1930년 말과 1931년 초에 당시 ‘동래군 구포’에서 설화 조사를 할 때 함께 채록했던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이필남이 제공한 23편의 민요를 합치면 손진태가 채록해서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올린 민요 자료는 64편으로 늘어난다.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손진태 채록 민요 자료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경상남도 부산’과 ‘경상남도 동래’의 민요로 올라 있는 자료들에서 이필남 제공 자료를 포함하여 손진태 채록 자료를 빼면 ‘동래군 구포’의 이경득(李庚得)이 제공한 민요로 <아리랑> 11편(908~918번), <속요> 1편(919번), <캐지랑이> 7편(934~940번)으로 총

24) 손진태가 남긴 유고 설화 자료는 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2 -우리의 민속과 역사』(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에 먼저 수록되었다. 최광식이 이를 현대 국어에 맞게 맞게 다듬고 일문 자료를 번역하여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우리나라 역사와 민속』(지식산업사, 2012), 559~688쪽에 수록했다.

25) 손진태의 한글본 유고 설화 자료에서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이 구술한 설화를 구술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0년 12월에 구술한 2편, 1931년 1월에 구술한 5편, 1931년 2월에 구술한 2편, 1931년 4월에 구술한 2편, 조사 시기 미상 1편을 합해 총 12편이다.

26) 손진태의 일문본 유고 설화 자료에서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李必南)’이 구술한 설화를 구술 시기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0년 11월에 구술한 2편, 1930년 12월에 구술한 5편, 1931년 1월에 구술한 15편, 1931년 2월에 구술한 4편, 1931년 4월에 구술한 2편으로 모두 28편이다. 각주 22)의 한글본 설화 12편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면 유고 노트에서 이필남의 구술 설화로 확인되는 설화는 모두 31편이다.

19편, ‘부산부 목도 영선정 1949(釜山府牧島瀛仙町一九四九) 김명숙(金明淑)’이 제공한 2편(920~921번), ‘동래군 서면 전포리(東萊郡西面田浦里) 신동엽(辛東燁)’이 제공한 <달>부터 <나물노래>까지 3편(941~943번)이 남는다. 이들 중 신동엽이 제공한 3편은 『매일신보』 1930년 11월 1일자로 독자 투고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²⁷⁾ 김명숙이 제공한 2편도 『매일신보』의 독자 투고 민요 목록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김소운 자신이 현 부산광역시 영도 출생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부산부 목도 영선정’(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에 주소를 둔 김명숙의 자료는 김소운 자신이 직접 수집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신동엽과 김명숙 제보 자료를 제외하면 ‘동래군 구포’의 이경득이 제공한 민요 19편이 남는다. 이들 자료는 『매일신보』의 독자 투고 민요 자료의 목록에 없다. 그렇다면 누군가로부터 제공한 자료를 받아서 김소운이 민요집에 수록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누군가의 장본인이 손진태일 가능성이 높다. 구포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인연으로 손진태가 1930년 말과 1931년 초에 ‘동래군 구포’에서 구비문학 자료를 집중 조사할 때 이필남의 민요와 함께 이경득의 민요도 채록했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경득이 설화 제보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손진태가 일문으로 편찬한 『朝鮮民譚集(조선민담집)』(동경: 향토연구사, 1930)²⁸⁾과 한글

27) 김영순은 『매일신보』(1930. 5. 10~12. 21)에 독자 투고한 동요와 민요를 모아 편찬한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을 ‘독자와의 소통’ 결과로 의미를 부여하여 그 소통 과정을 논의한 바 있으며, 전계영은 『매일신보』(1930. 5. 10~12. 21)에 독자 투고한 민요 자료와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민요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그 차이를 민요집의 편찬 과정과 편찬 취지를 밝히고자 했다. 김영순, 『『매일신보』 어린이란 ‘전래동요모집’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과 김소운』, 『동화와번역』 14, 2007, 15~40쪽. 전계영, 『20세기 전반기 민요집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54, 2018, 171~197쪽. 이 글의 부록으로 『매일신보』 수록 전래동요·구전민요의 목록을 붙이고 있다. 이 목록을 통해 『언문조선구전민요집』 수록 민요 자료의 출처를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다.

28) 손진태가 일문으로 편찬한 『朝鮮民譚集』을 이시준·장경남·김광식이 해설을 붙여 재간행(제이앤시, 2013)했으며, 최인학이 편역하여 『조선설화집』(민속원, 2009)로

본과 일문본 유고로 남겨진 설화 자료에서 찾아보았으나 이경득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물론 구비문학의 현장조사 시에 설화와 민요를 모두 제보하는 경우보다 어느 한 쪽을 집중 제보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화 제보자의 명단에 없다고 해서 이경득이 제보한 민요 자료를 손진태 채록 자료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여러 정황상 손진태 채록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비록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경득이 제보한 19편의 민요 자료를 손진태의 채록 자료에 추가하면 총 83편으로 김소운이 언급한 ‘100수’에 가까워진다.

이상과 같이 김소운이 편찬한 『조선언문구전민요집』에는 손진태가 직접 채록한 민요라고 표시한 41편, 그리고 손진태가 구포에서 설화와 무가를 조사할 때 함께 채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필남과 이경득 제공의 민요 각 23편과 19편을 합한 42편, 이들을 모두 합친 총 83편의 민요 자료를 모두 구포에서 손진태가 채록한 민요 자료로 보고자 한다.

3. 미발표 유고 원고 수록 민요 자료

손진태의 유고로 남겨진 미발표 원고는 최광식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다. 이 중 손진태의 미발표 유고 민요 자료는 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2 -우리의 민속과 역사』(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광식은 이 유고 민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동요와 민요에 대한 자료를 모은 노트가 남아 있다. 여기에는 동래 · 부산에서 수집한 ‘영감외그래’ 등 동요, 장기가와 모숨기노래 및 상여노래 등 민요의 가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 중 농부기는 김기풍 군이 조사하여 준 것이라고 적혀 있고, 1922년 여름에 기록한 것이라고

간행한 바 있다. 최인학이 편역한 책을 주로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메모가 되어 있다.²⁹⁾

이상의 내용을 참고로 보면, 손진태가 남긴 유고 민요와 동요 자료는 동래와 부산에서 조사한 것이고, 1922년 여름에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1922년 여름이면 손진태가 서울 중등학교를 졸업(1921년)하고 일본 동경의 와세다제1고등학교에 입학한 지 2년째 되는 여름방학 기간에 해당된다. 이때 채집한 민요 자료의 일부가 『금성』지에도 발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 유고집에 수록된 민요는 <무명가>, <타맥가>, <모(심기)>, <방아 ○열○>, <물방아노래>, <방구노래>, <장기노래>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로 삼은 민요는 7종에 불과하나, <무명가>, <물방아노래>, <장기노래>는 여러 각편을 모아놓고 있다.

먼저 <무명가>는 말 그대로 제목을 붙이기 어려운 민요를 모아 놓았는데, 민요의 사설을 살펴보면, ‘모심기 노래’로 불리는 것들이 19편이고, ‘부모 그리는 노래’, ‘바느질 노래’, ‘비녀 노래’, ‘달 노래’, ‘정자 타령’, ‘남녀연정요’, ‘상추 씻는 처자 노래’, ‘시집살이 노래’, ‘본처 노래’ 등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민요가 10편으로 파악된다. <물방아노래>는 물방아를 짙으며 부르는 민요들로 서사민요를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의 사설을 모아놓고 있다. 각편으로 따지면 모두 12편이다. <장기노래>는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쫓타”로 시작하는 노래는 장기를 두면서 부르는 ‘장기 노래’로 보이지만, 다른 각편들은 ‘장기 노래’라고 말하기 어렵다. ‘방치장 노래’, ‘배침지 노래’, ‘처녀 총각 노래’, ‘영감 왜 그래’ 등의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다. 손진태가 메모한 대로 인정한다면 모두 1920년대 초반에 불렀던 귀중한 민요 자료들이다. 이들 민요들을 각편을 기준으로 파악하면 모두 50편에 상당한다.

29) 최광식, 앞의 글(『손진태의 생애와 학문활동』), 28쪽.

4. 민요론 인용 민요 자료

손진태는 민요에 대한 관심을 국문으로 또는 일문으로 여러 편 발표했다. 일본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민요를 일본에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국문으로 발표된 글보다 일문으로 발표된 글이 더 많다. 국문으로 발표된 민요론으로 「조선(朝鮮)의 동요(童謠)와 아동성(兒童性)」(『신민』 제22호, 1927. 2)이 있고, 「조선심(朝鮮心)과 조선(朝鮮)의 민속(民俗)」(『동아일보』 1934. 10. 10~19) 중 ‘민요(民謠) 동요상(童謠上)에 나타난 조선심(朝鮮心)’이 있다. 일문으로 발표된 민요론은 『短歌雜誌(단가잡지)』와 『東洋(동양)』지에 발표된 것들이다.³⁰⁾ ① 「朝鮮の童謠と子供(조선의 동요와 어린이)」(『短歌雜誌』 제9권 제2호, 1926. 2), ② 「朝鮮婦謠(조선의 부요)」(『短歌雜誌』 제9권 제5호, 1926. 5), ③ 「朝鮮の童謠(조선의 동요)」(『東洋』, 1926. 8), ④ 「朝鮮の子守唄と婦謠(조선의 자장가와 부요)」(『東洋』, 1926. 9)로 모두 전집과 유고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글들이다.³¹⁾ 글을 발표한 시기로 보면 일문 민요론이 국문 민요론보다 앞선다.

일문으로 쓴 4편의 글은 내용을 따지면 2편으로 줄어든다. ③의 글은 ①의 글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고, ④의 글은 ②의 글을 역시 일부 순서를 바꾸어 수정 보완한 것이다. ①과 ③, ②와 ④의 글이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들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요와 부요 자료들 역시 동일한 것으로 겹친다.

30) 손진태가 일문으로 발표한 민요론을 들면 다음과 같다. 孫晉泰, 「朝鮮の童謠と子供」, 『短歌雜誌』 제9권 제2호, 1926. 2; 「朝鮮の童謠」, 『東洋』, 1926. 8; 「朝鮮婦謠」, 『短歌雜誌』 제9권 제5호, 1926. 5; 「朝鮮の子守唄と婦謠」, 『東洋』, 1926. 9.

31) 『短歌雜誌』와 『東洋』지에 일문으로 발표된 손진태의 민요론은 손진태 전집과 유고집에 모두 빠져 있다. 각주 17)과 중복되지 않는 글들을 추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孫晉泰, 「朝鮮歌曲紹介」, 『短歌雜誌』 제8권 제8호, 1925. 8; 「歌曲から見た朝鮮人」, 『短歌雜誌』 제8권 제9호, 1925. 9; 「戀わつた戀愛歌 - 朝鮮歌謠の研究」, 『短歌雜誌』 제9권 제11호, 1926. 11.

①과 ③은 조선의 동요가 어린이의 놀이나 생활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동요를 통해 어떤 생각을 나타내는지를 논의한 글이다. 이들 글에서 인용, 논의한 동요 자료는 모두 14편이다. “새는새는”으로 시작하는 <아기 재우는 노래>, 음식을 먹다 체하면 체한 음식을 내리기 위해 부르는 <음식 내리는 노래>, 비가 올 때 부르는 <비 노래>, 바람이 불어 대추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대추 노래>, 그리고 <잠자리 잡는 노래>, <반딧불이 노래>, <달팽이 놀리는 노래>,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르는 <기러기 노래>, 아이들이 원형으로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 아이들이 달밤에 술래잡기를 하면서 문답 형식으로 부르는 <술래잡기 노래>, 눈에 티가 들어가면 눈을 비벼주며 부르는 <눈 티 없애는 노래>,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며 부르는 <장님놀이 노래>, 아이들이 먹보놀이를 하며 부르는 <먹보놀이 노래>, 중을 놀리며 부르는 <중머리 놀리는 노래>, 이외 <타박네 노래>, <말꼬리 따기 노래> 등이다. 글을 발표한 시기로 보아 이들 동요 자료가 엄필진의 『조선동요집』(1924)에서 가져온 것은 아닌가 하여 살펴보아도 동일한 자료가 없다. 동요가 일문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중 일부는 후술하는 정인섭의 민요 채록본의 자료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인섭의 민요 채록본에도 없는 동요도 상당수가 된다. <음식 내리는 노래>, <반딧불이 노래>, <기러기 노래>, <술래잡기 노래>, <먹보놀이 노래> 등은 출처를 확인하기 이전에는 손진태 조사 민요 자료로 잠정적으로 잡을 수 있다.

②와 ④의 글은 당시 조선의 부요를 부녀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논의한 글이다. 역시 민요의 출처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없다. 아기를 어릴 때 부르는 <알강달강요>, “형님형님 사촌형님”으로 시작하는 <시집살이 노래>, 병어리인 줄 알았던 떠느리의 이야기와 함께 언급된 <꿩 노래>,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부모 그리는 노

래>, 고사리를 꺾으며 부르는 <고사리 꺾는 노래>가 이들 글에서 논의 되어 있다. 인용 민요가 일문으로 번역되어 있어 원문과 함께 출처 확인이 어렵지만, <뽕 노래>, <부모 그리는 노래>, <고사리 꺾는 노래> 등 서사민요는 손진태가 설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록한 자료일 개연성이 크다.

①~④의 글에서 인용, 논의한 민요 자료 중 일부의 출처는 국문으로 발표한 『조선의 동요와 아동성』(1927. 2)을 읽으면 알 수 있다. 이 글은 일문으로 발표한 ①~④의 글을 거쳐 최종 완성된 동요론이라 할 수 있다. 동요의 아동성을 ‘생동성’, ‘식욕, 소유욕’, ‘단순, 자연아’, ‘음악적’, ‘혁명적, 정복적’, ‘호기성’, ‘애-비에’로 나누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인용, 논의된 동요 대부분은 손진태가 직접 채록한 자료가 아니다. 정인섭(1905~1983)의 민요 채집록을 빌려서 옮긴 다음,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동요의 특성을 논의한다고 글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學友 鄭寅燮 君은 熱々한 郷土研究家이다. 君이 三年 前에 나에게 보여준 君의 採集錄에는 何일 수 업는, 우리 童謠, 婦謠, 處女謠, 民謠가 잇섯다. …(중략)… 나는 君에게 數個月만 그 採集錄을 빌려달 나고 하엿다. 君은 그것을 快諾하엿다. 나는 무슨 큰 寶具나 어든 것 처름, 睡眠時間을 節約하면서 그것을 謄書하엿다. …(하략)…

如上한 까닭임으로, 내가 지금 쓰고져 하는 우리 童謠의 材料는 大部分이 鄭君의 『노트』에서 나온 것이요, 君이 慶尙道 出身임으로 因하여 그 材料도 擧半 慶尙道의 것이다.³²⁾

『조선의 동요와 아동성』에는 모두 48편의 동요가 논의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정인섭의 민요 채집록에서 인용한 동요가 대부

32) 손진태, 『조선의 아동과 아동성』, 『신민』 22, 1927. 2, 46쪽.

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정인섭이 채집한 민요 자료는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의 ‘보유’ 편 중 ‘경상남도’ 민요로 2250번부터 2344번까지(619~640쪽) 95편 게재되어 있다.³³⁾ 이를 손진태의 글에 인용 논의된 자료와 대조해 보면 자료의 출처가 드러난다. 인용된 48편 중 38편이 정인섭이 채록한 민요 자료이다. 여기서 빠진 동요 1편은 엄필진의 『조선동요집』(1924)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나머지 9편이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정인섭의 민요 채집록에는 있으나 김소운의 민요집에서 빠진 자료일 수도 있고, 손진태 자신이 채록한 자료일 수도 있다. 아니면 특별히 채록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동요 자료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미 언급했듯이, 김소운이 정인섭의 채록 자료를 민요집에 게재할 때 일부를 누락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귀중한 자료를 제공 받은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취사선택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진태 자신이 구포지역에서 채록한 자료이거나 본인이 청소년기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민요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출처 미상의 9편은 바람이 불어 대추가 떨어지기를 바라며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로 시작하는 <대추 노래>, 길을 가다가 낮을 주어서 부르는 가칭 <길로길로 가다가>, 어머니가 아기와 함께 놀면서 부르는 “도래도래”, “조막조막”, “진진 진진” 등으로 부르는 동요, 아기를 부르며 부르는 <알강달강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 “옛날옛적에 간날 갖적에” 또는 “이야기 때에게 뱃때기”라고 부르는 <옛날이야기 노래> 2편, 비가 올 때 기어가는 달팽이를 보며 부르는 “비야비야 오지마라”라고 부르는 <비 노래>, 아기를 재우며 “새는새는”으로 시작하는 <아기 재우는 노래>, 그리고 <파랑새요> 1편이다. 출처를 특별히 밝히지

33)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들어 있는 정인섭의 채록 자료는 정인섭이 김소운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기보다 손진태에 의해 제공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정인섭이 95편이나 되는 민요 자료를 김소운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라면, 민요집의 서문에서 이름을 거명하며 감사의 뜻을 밝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않더라도 손진태 자신이 충분히 알고 있는 동요로 보인다. 이들 9편은 일단 다른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손진태 조사 민요 자료의 목록으로 올릴 수 있다.

『조선심과 조선의 민속』(1934. 10. 10~19) 중 ‘민요 동요상에 나타난 조선심’에 언급된 민요 대부분의 출처도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 논의된 민요 15편 중에 12편이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민요와 동일하다. 이 중에 손진태가 채록한 민요 2편, 정인섭이 채록한 2편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3편은 모두 동요인데, 앞서 논의한 동요론에서 이미 언급된 <비 노래>, <대추 노래>와 배나무에 열린 배를 보며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배 노래>가 있다.

이상 손진태의 조사 민요 자료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찾은 결과, 『금성』지에 발표된 민요가 14편, 김소운이 편찬한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민요로 이필남, 이경득 제보자의 것을 포함하여 83편, 유고 민요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50편, 민요론 등의 글을 통해 손진태의 조사 민요로 추정되는 것이 17편이다. 전체를 모으면 164편이니 적지 않은 편수이다. 손진태의 조사 민요 자료를 재확인하는 이상으로 이들 민요 자료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일이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Ⅲ. 손진태 채록 부산지역 민요의 성격과 의의

1. 민요 자료의 현장성과 채록 방식의 의의

손진태가 부산지역에서 조사한 민요로 잠정 파악되는 164편은 주로

어떤 성격을 지니는 민요들인지, 그리고 해당 민요들이 가지는 자료사적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논의할 차례이다.

손진태의 조사 민요를 새롭게 찾은 중요한 의의는 무엇보다 손진태의 구비문학 내지 민속학의 관심 대상이 민요에도 있었음을 재인식하는데 있다. 손진태의 민요에 대한 관심은 와세다제1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창시절부터 있었다. 이는 유고로 남은 민요 자료를 손진태가 1922년 여름에 기록한 것이라는 메모로부터 확인된다. 그런데 민요에 대한 관심은 무가, 설화에 대한 관심과 병행되었다. 1922년 8월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 석씨(石氏) 무녀’와 ‘무녀 한순이’로부터 채록한 무가와 설화가 손진태의 『조선신가유편』(일문, 1930)과 『조선민담집』(일문, 1930)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손진태의 민속 내지 구비문학 관련 저술들을 전체로 놓고 보면, 손진태는 무속을 포함한 민간신앙, 무가, 설화에 더 큰 비중을 둔 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민요보다 설화, 민속보다 역사에 더 관심을 둔 활동을 전개했다. 그가 조사한 민요 자료가 상당수 되어도 독자적인 민요집을 발간하지 않았던 까닭은 손진태의 활동 편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비록 상대적이지만 무가와 설화보다 민요에 관심을 적게 두고 있었고, 그가 조사한 민요 자료의 상당수가 이미 김소운에게 제공되어 활자화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민요집을 발간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리라 여겨진다. 그렇지만 이는 손진태의 개인적인 사정에 한정되는 일이며, 그것이 손진태 조사 민요 자료의 중요성을 반감시키지 않는다. 손진태가 조사한 민요 자료는 1920년대 초부터 1930년 초까지 부산지역, 특히 구포에서 조사한 자료라는 점에서 그 자체 당시의 민요 자료를 파악하고 전승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점이 손진태 채록 부산지역 민요 자료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이며 가치이다.

손진태는 누구보다 현장조사를 중시한 민속학자이자 구비문학학자이다. 1922년 8월 이후에도 수시로 일본에서 국내로 건너와서 민속과 구비문학 조사를 했다. 이는 그가 남긴 각종 민속 관련 보고 자료들과 여러 차례 남긴 현장조사 답사기³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민요를 조사한 ‘동래군 구포’에만 한정해도, 1923년 11월 ‘동래군 구포 박씨부인’으로부터의 설화 조사, 1925년 12월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 최순도(경남맹인조합장)’으로부터의 무가 조사, 1931년 8월 재차 이루어진 최순도로부터의 무가 조사, ‘경남 동래군 구포읍 이필남’을 상대로 1930년 11월, 12월과 1931년 1월, 2월, 4월로 5차례에 걸친 설화와 민요 조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손진태가 남긴 민요 자료는 일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있고, 유년시절 자신이 습득한 민요 자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이다. 손진태의 민요 자료가 갖는 현장성이 이런 점에서 특히 내세울 만한 의의를 가진다.

손진태의 민요 자료 채록의 현장성을 중요시한 만큼 그에 따른 채록 방식도 당시로서는 다른 이들에 비해 앞선 방식을 보여준다. 『금성』 제2호(1924. 1)에 게재된 민요 ‘식집사리’의 경우를 보자.

성아성아 四寸성아
 식집살이 엇더트노
 애야애야 그말마라
 중우버슨 식아재비
 말하기도 어렵드라
 쏘고마환 도리판에
 수저늦기도 어렵더라

34) 민속 현장조사답사기로 『토속연구여행기』(『신민』 제2권 제5호, 1926. 5), 『포천송우리 장승답사기』(『신민』 제2권 제6호, 1926. 6), 『민속채방여록』(『향토연구』 제6권 제4호, 1932), 『조선민속채방여록1-2』(일문, 1933) 등이 있다.

쪼고마한 수박게우
밥담기도 어렵더라

註. 성(兄)、중우(單袴)、도리판(圓形의 小食床)、수박게우(西瓜
形의 食器)。

톡톡치는 저날개는
우리식아바니 주고지고
꼭꼭꼭는 채주둥이는
우리식누의 주고지고
싹싹해비는 저발톱은
우리식어머니 주고지고

註. 이것은 매(鴈)를 보고 식집살이를 노래한 것、媿父는 每事에
답혀주는 것이 만타 함이오, 식누이는 쪼집어 말을 하고, 식
어머니는 過失을 잘 파내인단 말.

(東萊 孫重子 寄)

이상 ‘식집사리’의 채록을 통해 첫째 방언 그대로 채록한 점, 둘째 음
보를 구분하여 정연하게 채록한 점, 셋째 방언이나 어려운 어휘에 주석
을 붙인 점, 넷째 각주를 붙여 해당 노래의 가창 상황을 말한 점, 다섯 째
노래의 대강을 간략하게 해설한 점, 여섯 째 제보자를 밝힌 점 등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러한 채록 방식이 모든 민요 채록에 적용된 것은 아니
지만, 손진태는 민요 채록의 방식을 누구보다 앞서 ‘현장성’에 충실하여
채록하려고 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를 채록을 통해 나타
냈다.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수록된 손진태 채록 민요도 기본적으로 이
런 채록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요로 채록된
한 편을 보자.

가자가자 감나무야
오자오자 옷나무야
시리미테 곱백이야
가장없서 몬살겟나
내엘모래 장에가자
돌문둥이하나 어더좃게

* 갓치 놀다가 한 아이가 「가자」고 하면 미워서 놀려주노라고
시리=시루, 곱백이=곱팡이.

위 동요는 제보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채록상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언문조선구전민요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진태가 채록하여 제공한 ‘부산’과 ‘동래’에 수록된 민요 자료만 이렇게 자세한 채록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제보자가 명시되지 않은 점과 함께 채록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엄필진이 펴낸 『조선동요집』(1924)은 물론이고 이후 간행된 여러 민요집의 채록 방식보다 앞선 방식을 보여주었다. 손진태가 이러한 채록 방식을 기초로 독자적인 민요집을 간행했다라면 더욱 좋은 민요 자료를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미 공을 김소운에게 넘긴 상태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구포에서 전라북도 임실 출신의 오학선으로부터 채록한 민요 자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은 역시 현장조사의 채록 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三十年前記憶, 任實 出生 吳學善 唱(六十二歲 盲금쟁이 盲翁)
於 東萊郡 龜浦市場 孫晉泰 採錄

이상의 기록은 매우 요약적이지만, 조사 장소, 제보자의 조건(나이,

직업, 신체적 특징), 가창한 민요의 특징, 조사자에 대한 기록이 모두 들어 있다. 『언문조선구전문요집』에서 이러한 현장조사 관련 기록이 들어 있는 자료는 손진태의 자료 외에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물론 부족한 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조사 시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손진태가 채록했거나 제공한 자료 모두 이상과 같이 기록되었다면 자료적 가치는 한층 더 높았을 것이지만, 아쉽게도 다른 자료들에서는 조사 시기가 드러나지 않고, 제보자의 조건이나 가창상황에 대한 기록도 없다. 이 점이 그가 남긴 무가와 설화 자료와는 달리 민요 자료가 갖는 문제점과 한계이다.

손진태가 남긴 민요 자료가 현장조사 자료임에도 이처럼 기록상의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남긴 사항은 조사 장소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민요의 조사 장소가 모두 ‘동래군 구포’라는 점이다. ‘동래군 구포’는 1922년 8월 설화, 무가, 민요를 처음 조사한 곳이기도 하지만, 이후 틈이 있을 때마다 구포로 와서 현장 조사를 한 곳이다. 유년시절의 기억이 간직되어 있는 곳이면서 그가 학문적 자양분을 얻게 된 중요한 장소가 ‘동래군 구포’라는 말이다. 손진태의 민요 자료가 갖는 네 번째의 의의는 바로 ‘동래군 구포’, 나아가서 부산의 전승 민요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사실에 있다. 민요 자료가 놓인 시기는 1922년 8월부터 1931년 4월 이전인데, 이들 민요를 통해 구포지역, 나아가 부산지역 민요의 중요한 전승 국면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산지역 전승 민요의 장소성과 정체성

손진태의 조사 민요가 구포지역, 나아가서 부산지역에서 1920년대 초반에서 1930년 초에 불린 민요의 중요한 국면을 파악하는 데 주목할

민요를 크게 네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모찌기와 모심기 등 모내기를 하면서 불렀던 농요(농업노동요)이며, 둘째는 구포에서 채록된 <아리랑>이 갖는 당시 전승 면모와 특성과 관련된 측면이다. 셋째는 구포에서 불린 <장타령>, <각설이타령>, <쾌지랑이>(쾌지나 칭칭나네) 등이 갖는 특성과 가치의 측면이며, 넷째는 손진태가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동요와 부요의 측면이다.

1) 부산지역 <모심기 노래>의 면모와 전승

손진태가 구포에서 당시 채록된 농요로는 『금성』 제2호(1924. 2)에 소개된 ‘등지(移秧歌)’ 9편, 김소운의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에서 이필남으로부터 채록한 ‘농요’ 20편이 있으며, 유고 민요 자료에서 ‘무명가’에 20편 가까이 들어 있는 <모심기 노래>와 ‘타맥가’ 1편, ‘모심기’로 분류된 <모찌기 노래> 1편을 찾을 수 있다. ‘타맥가’라 한 <보리타작 노래>와 “밀치라 닥치라 모도잡아 훌쳐라”라고 한 <모찌기 노래>를 제외하고 모두 <모심기 노래>로 불린 것들이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구포지역은 들이 넓어 논농사가 발달한 지역이기에 모심기 노래 등 농요가 널리 불린 지역이다. 손진태가 조사한 민요 자료를 통해 특히 1920~30년대 구포를 중심으로 <모심기 노래>로 어떤 사설들이 불린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 일단을 1920년대 초에 채집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지(移秧歌)’를 보자.

물길랑청청허러눗코 主人兩班어디갓소.

문어야전복손에들고 쫘의방에놀너갓소.

○

서울이라왕대맞헤 금비들기알을나아

그알한개내주엇든들 금년과거내가할걸.

○

나뵈야한쌍가는길에 이슬이자저못가갯네
매화야대를씩거취고 이슬털너가자시야.

○

서울갓든우리선배 어딴만치오시는고
오기야오지마는 칠성판에실녀온다.

○

아가야가우지마라 죽은어미젓이나나나
짜구야짜구야쫓지마라 죽은남게물이나나.

(註) 짜구 啄木鳥, 남게=나무에.

○

님이야죽어서연자되여 충실끗혜집을지어
날면보고들면보아도 님인줄은내몰낫네.

(註) 충실=침하

○

곽안에들은娘子시야 이리케가면언제올고
초록에이슬은 해만지면오것마는.

○

저괴가는저구름아 엇더나神仙타고가노
대국이라턴자봉에 노든神仙타고가네.

(註) 엇더나=엇더한

○

애야애야처자야 너를보니 금음밤에 달본듯다
애야애야총각아 너를보니 오동지섯달에쫓본듯다.

(註) 듯다=듯하다

부산에서는 대체로 서부지역에서는 <모심기 노래>를 ‘등지’라 하고, 양산과 가까운 북동부지역에서는 ‘정자 소리’라고 한다. 구포에서 채록된 ‘등지’는 비록 9편에 불과하지만, ‘아침소리’로 흔히 불리는 노래가 앞부분 3편이고, 나머지 6편은 ‘점심 소리’나 ‘저녁 소리’로 흔히 불리

는 것들이다. 한 줄씩 교환창으로 주고받는 노래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채록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반적 순서도 고려했으며, 잘 알기 어려운 어휘에 대해서 주석을 붙였다. 그만큼 <모심기 노래>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눈으로 읽더라도 그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채록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모심기 노래>를 필자가 최근에 구포지역 등 부산의 서부산권 민요를 조사한 결과³⁵⁾와 비교해 보면, 위의 각편들 중 일부(“아가야 우지마라”, “꼭안에든娘子시야”, “애야애야처자야”)를 제외하고 최근까지도 조사되는 각편들이다. 오랫동안 전승되는 각편들이 많다는 것은 <모심기 노래>가 전승력이 매우 강하면서 그만큼 노래 사설의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아리랑>의 세태반영적 성격과 의의

구포지역에서 채록된 민요로 주목되는 것이 <아리랑>(908~918번)이다. ‘동래군 구포’ 거주 이경득이 제보한 것으로 기록된 <아리랑> 11편은 일단 ‘구포아리랑’이라 명명해도 좋을 듯하다.³⁶⁾

담넘어갈때는 큰마음묵고

門꼬리잡고는 발발떠네

아리랑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다 노다가세(908) (이하 후렴 생략)

35) 박경수·황경숙 편, 『서부산 문화권 민요(Ⅰ)-강서구 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7; 『서부산 문화권 민요(Ⅱ)-북구·사상구·사하구 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36) 이 아리랑을 구포가 아니라 지역의 범위를 넓혀 ‘부산아리랑’이라 한 바 있다. 김연갑, 『아리랑』(현대문화사, 1986), 372~373쪽에 해당 아리랑을 ‘부산아리랑’으로 적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에도 ‘부산아리랑’으로 올라 있다. 그렇지만 ‘구포아리랑’이 아니라 ‘부산아리랑’으로 부르는 것은 이 아리랑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 아닌가 한다.

靑天하늘에 별도만코
호래비살님에 말도만타(909)

聞慶새재 박달나무
홍독개방맹이로 다나간다(910)

노다가소 노다가소
저달이지도록 노다가소(911)

靑絲초롱에 불발켜라
죽엇든郎君이 도라오리(912)

복금새울거든 봄온줄알고
하모니카 불거든 날온줄아소(913)

시어만이죽으라고 축사했드니
보리방아물부아노코 생각난다(914)

시어만이죽어서 新作路복판대고
이내몸죽어서 自動車대세(915)

문풍紙떠러진데는 풀가지작이요
우리님달개는데는 金錢이지작이라(916)

하가끼한장에 一錢고厘해도
님의야소식이 無消息이로세(917)

無情有情은 錦繡야江山
돈씨다가돈떠러지면 寂寞江山(918)

필자는 위 <아리랑>이 부산지역과 연결되는 장소성이나 정체성이 노래 사설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하면서 근대계몽기 이후 널리 유행한 민요계 잡가인 <아리랑타령>과의 비교를 통해 그 성격을 논의한 바 있다.³⁷⁾

위 <아리랑>의 성격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고개로 노다가세”란 후렴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될 수 있다. 근대계몽기부터 널리 유행한 민요계 잡가인 <아리랑타령>의 후렴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뛰여라 노다가세”와 비교해 보면, “아리랑 뛰여라”가 “아리랑 고개다”로만 바뀌어 있다. 이런 점에서 구포에서 채록된 <아리랑>은 근대계몽기에 권번 등을 통해 널리 확산된 <아리랑타령>과 맥락을 가지면서도, <아리랑타령>의 유흥적인 성격으로부터 탈피하고 있는 아리랑이다. “아리랑 고개”가 새롭게 후렴으로 대체되었으나, 이어지는 “노다가세”의 구절에 한정됨으로써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노래로서의 아리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아리랑>의 중요 성격은 <아리랑타령>과 크게 다르다. 부분적으로 <아리랑타령>으로 불리는 가사와 같거나 유사한 각편들도 있지만, 각편 915번부터 918번까지의 가사는 <아리랑타령>으로는 불리지 않는 것들이다. 915번은 신작로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각각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전환시켜서 신세 역전의 상황을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으며, 916번부터 918번까지는 금전만능의 세태를 희화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아리랑타령>의 유흥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세대 반영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일명 ‘구포아리랑’으로 명명될 수 있는 <아리랑>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

37) 박경수, 『부산지역 아리랑의 전승 양상과 생성 국면 연구』, 『항도부산』 33, 2017, 344~348쪽.

3) 〈장타령〉, 〈각설이타령〉 등의 장소성과 생업 환경의 반영

구포에서 채록된 〈장타령〉(899번)과 〈각설이타령〉(900~905번), 그리고 〈캐지랑이〉(934~940번)도 주목되는 민요이다.

먼저 〈장타령〉과 〈각설이타령〉은 구포란 지명을 붙여 ‘구포장타령’, ‘구포각설이타령’이라 부를 만하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구포장은 일제강점기에 근처 농수축산물이 집하되고 거래되었던 크고 중요한 장터였다. 당연히 각설이패들이 구포장터에 몰려들어 〈장타령〉이나 〈각설이타령〉 등을 부르며 난장을 펼치고 물건을 팔았다. 손진태가 채록한 〈장타령〉과 〈각설이타령〉은 당시에 부른 민요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노래이다. 먼저 〈장타령〉을 보자.

셋바람반지 下端장
 너무침어서 몬보고
 나리건너 鳴湖장
 船價가업서 몬보고
 골목골목 釜山장
 질몬차자 몬보고
 꾸벽꾸벽 龜浦장
 허리가압과 몬보고
 미지기짚다 密陽장
 싸개를묵어서 몬보고
 고개넘어 東萊장
 다리가압과 몬보고
 아가리크다 大邱장
 너무널너서 몬보고
 이산저山 梁山장
 산이만아서 몬보고
 코푸렀다 興海장

밋거리버서 문보고
 쏙삿다 求禮장
 냄세가나서 문보고

위 <장타령>에 나오는 하단장, 명호장(명호는 현 명지), 부산장, 구포장, 동래장은 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장소이다. 구포 주변의 중요 장을 언급하고 주변의 부산장, 동래장으로 확대해서 부르다가 대구장, 양산장, 흥해장, 구례장으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장터가 갖는 특색을 지명의 명칭과 연결하여 해학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이 <장타령>은 오늘날 <구포장타령>으로 명명되어 최근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다. 1985년에 구포에 거주하는 박복명(여, 당시 85세) 노인이 부른 <구포장터놀이>를 보면, 위에서 채록된 <창타령>을 근간으로 사설이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³⁸⁾

<각설이타령>에서도 지역성이 잘 드러나는 사설이 개입되어 있다. 모두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설이가 등장하는 내용의 사설(900~901번), 일자(一字)부터 십자(十字)까지 숫자와 연결하여 인물이나 풍속을 풀이하는 사설(902~903번)을 부른 후 다음 사설을 넣고 있다.

東萊釜山 처자는
 작으나크나 알배기
 機張蔚山 처자는
 매옥장사로 다나가고
 多大影島 처자는
 갈과래장사로 다나가고
 ○○○○ 처자는
 개십풀장사로 다나가고

38) 낙동향토문화원,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부산직할시 북구(문화공보실), 1993, 401~402쪽.

<각설이타령>이지만 구포에서 불린 노래로 구포와 가까운 곳의 지명을 붙여서 ‘동래부산’, ‘기장울산’, ‘다대영도’가 갖는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재미있게 노래하고 있다. 동래와 부산은 중심지 읍내에 있으니 ‘알배기’ 처자라 했고, 기장과 울산은 매옥, 즉 미역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미역장사를 하는 처자가 많다고 뜻이다. 다대와 영도는 갈파래, 즉 청태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갈파래 장사를 하는 처자가 많다고 노래했다. 구포에서 불린 <각설이타령>의 지역적 연관과 장소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캐지랑이>(934~940번)는 모두 7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기한 <아리랑>을 부른 이경득이 가창한 것으로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 올라 있다. 흔히 ‘쾌지나칭칭나네’(또는 ‘칭칭이소리’)로 통칭되는 것으로 경상도에서 남성들이 춤을 추며 흥겹게 부르는 대표적인 민요이다. 『언문조선구전민요집』에서 유일하게 게재되어 있으면서, 채록 시기가 1931년 전후로 추정되는 만큼 <쾌지나칭칭나네>로 매우 앞선 시기의 가창 가사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IV. 마무리

손진태(1900~1960년대 중반)가 일제강점기에 조사, 채록한 민요 자료들은 여러 문헌에 흩어져 있었다. ① 문예지 『금성』(1924. 1~2)에 수록된 민요 자료, ② 김소운이 편한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에 수록된 자료, ③ 미발표 유고 원고로 전해지는 민요 자료, ④ 여러 민요론에서 인용된 민요 자료를 새롭게 찾는 작업을 했다. 그 결과 ①에서 14편, ②에서 83편, ③에서 50편, ④에서 17편 등 전체 164편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민요 자료가 갖는 성격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손진태의 민요 자료는 ‘동래군 구포’에서 채록한 자료들이다. 민요 자료가 놓인 시기는 1922년 8월부터 1931년 4월 이전인데, 이들 민요를 통해 구포지역, 나아가 부산지역 민요의 중요한 전승 국면과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손진태의 구비문학 내지 민속학과 관련하여, 새롭게 찾은 부산 지역 민요 자료는 무엇보다 손진태의 구비문학 내지 민속학의 관심 대상이 민요에도 있었음을 재인식하면서 향후 손진태의 구비문학 내지 민속학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 데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본다.

셋째, 손진태가 남긴 민요 자료는 일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 취득한 자료라는 점에서 현장성을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채록 방식에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로서는 민요 채록 자료의 현장성을 가능한 드러내는 채록 방식을 택하고, 독자의 이해와 소통을 배려한 자료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엄필진이 펴낸 『조선동요집』(1924)은 물론이고 이후 간행된 여러 민요집의 채록 방식보다 앞선 채록 방식을 손진태가 보여주었다.

넷째, 손진태 조사 부산지역 민요 자료들 중에서 <모심기 노래>는 1920년대 초기의 전승 상황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아리랑>은 ‘아리랑타령’ 으로부터 이어진 맥락을 보여주지만, 당시의 세태를 흥미 있게 반영하고 있는 노래이다. 일명 ‘구포아리랑’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을 하여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구포에서 채록된 <장타령>과 <각설이타령>도 구포에서 채록된 가장 오래된 민요로, 구포를 둘러싼 지역의 생태환경이 반영된 장소성이 잘 드러나는 민요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캐지랑이>(캐지나 칭칭나네)도 경상도의 대표적인 민요의 하나로 오래전에 불린 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치가 있다.

손진태는 동요와 부요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던 뿐만 아니라 동요와 부요에 대한 논의를 집중 펼쳤다. 1920년대와 1930년 초반 동요의 양상과 특징, 그리고 서사민요를 포함한 부요의 여러 특징들을 파악하는 데 손진태의 민요 자료는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지만, 이 부분은 민요론과 함께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손진태가 조사, 채록한 부산지역 민요 자료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좀 더 다각적으로 밝히는 노력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금성』 제2호(1924. 1).

『금성』 제3호(1924. 2).

김광식, 「시즈미 효조(清水兵三)의 조선 민요·설화론에 대한 고찰」, 『온지논총』 28, 2011.

김소운 역편, 『조선동요선』(일문), 암과서점, 1933.

김소운 편, 『언문조선구전민요집』, 제일서방, 1933.

김연갑, 『아리랑』, 현대문화사, 1986.

김영순, 「『매일신보』 어린이란 ‘전래동요모집’을 통한 독자와의 소통과 김소운」, 『동화와번역』 14, 2007.

낙동향토문화원, 『낙동강 유역 민속·민요집』, 부산직할시 복구(문화공보실), 1993.

남근우, 「‘손진태학’의 기초연구」, 『한국민속학』 28, 1996.

류기선, 「1930년대 민속학 연구의 한 단면 - 손진태의 ‘민속학’ 연구의 성격을 중심으로」, 『민속학연구』 2, 1995.

박경수, 「부산지역 아리랑의 전승 양상과 생성 국면 연구」, 『향도부산』 33, 2017.

_____, 「일제강점기 부산지역 아동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향도부산』 28, 2012.

박경수·황경숙 편, 『서부산 문화권 민요(I) -강서구 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회, 2017.
- _____, 『서부산 문화권 민요(II) -북구·사상구·사하구 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8.
- 손진태, 『朝鮮の童謠』, 『東洋』, 1926. 8.
- _____, 『朝鮮の童謠と子供』, 『短歌雜誌』 제9권 제2호, 1926. 2.
- _____, 『朝鮮の子守唄と婦謠』, 『東洋』, 1926. 9.
- _____, 『朝鮮婦謠』, 『短歌雜誌』 제9권 제5호, 1926. 5.
- _____, 『朝鮮心과 朝鮮의 民俗』, 『동아일보』, 1934. 10. 10~19.
- _____, 『朝鮮의 童謠와 兒童性』, 『신민』 제22호, 1927. 2.
- _____, 『朝鮮神歌遺篇』, 동경: 향토문화사, 1930.
- _____, 이시준·장경남·김광식 해설, 『조선민담집』, 제이앤시, 2013.
- 심승희, 『장소 개념의 스택트럼과 잠재력』, 『현대 문화지리의 이해』, 푸른길, 2013.
- 엄필진, 『조선동요집』, 창문사, 1924
- 이기백 편, 『손진태선생전집1~6』(전6권), 태학사, 1981.
- 이수자, 『구비문학 연구의 성격과 의의』, 『역사민속학』 11, 2000.
- 이필영, 『남창 손진태의 역사민속학의 성격』, 『한국학보』 41, 1985.
- 전계영, 『20세기 전반기 민요집 『언문조선구전민요집』(1933)에 관한 연구』, 『한국민요학』 54, 2018.
- 최광식, 『조선상고문화의 연구』(남창 손진태선생 유고집 1),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 _____, 『우리나라 민속과 역사』(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2),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 _____, 『우리의 역사와 민족』(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지식산업사, 2012.
- _____, 『손진태의 생애와 학문활동』, 『역사민속학』 11, 2000.
- 최인하 편역,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 홍홍구, 『남창 손진태의 국문학 연구』, 『한국어문연구』 10, 1997.
- 황인덕, 『손진태의 구비문학 연구』, 『구비문학연구』 2, 1995.

투고일 : 2019. 10. 26. 심사완료일 : 2019. 12. 04, 게재확정일 : 2019. 12. 17.

| Abstract |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Folk Songs investigated by Sohn, Jin-Tai in Bus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Park, Kyung-Su

I first searched for various folk songs collected by Sohn Jin-tai (1900-1960s) in the Busan a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Next, I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se folk songs. The folk song materials collected and surveyed by Sohn Jin-tai are as follows. ① 14 song materials sung by the pen name 'Sohn Jung-ja' in the literary magazine *Keumsung*, ② 83 song materials in *Korean Oral Folk Songs*(1933) edited by Kim So-un, ③ 50 song materials in unpublished note manuscript collecting folk songs, ④ 17 songs cited in folk songs theories. These folk songs are 164 pieces in total.

Most of the folk songs in the Busan area surveyed and collected by Sohn Jin-tai ranged from August 1922 to before April 1931. These songs are very valuable materials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folk songs in Busan, and most of them are meaningful because they were obtained by direct field survey.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Sohn Jin-tai's folk song recoding method is quite advanced at the time. We can see folk songs as written in tongues, neatly divided by musical scores, annotated dialects or difficult vocabulary, and clearly identified folk song singers.

The folk song materials collected and surveyed by Sohn Jin-tai were also collected mainly from 'Dongrae-gun Gupo'. Among these, <Arirang> is an interesting song that reflects the condition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needs to be reexamined as 'Gupo Arirang'. <Jang-taryeong>(i. e. Song

of Markets) and <Gakseoli-taryeong>(i. e. Song of Beggar) are also folk songs that show the placeness of the area surrounding Gupo. <Quejinachingchingnane> is one of Gyeongsang-do's representative folk songs, and it is noted as a song that shows the song sung in Busan.

Sohn collected and discussed on Children's Oral Songs and Female Folk Songs with special interest. The folk songs surveyed and collected by Sohn Jin-tai are very important evidences for understanding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Oral Songs and the characteristics of narrative folk songs in the 1920s and early 1930s.

Keywords: Sohn Jin-tai, Busan Folk Songs, Topophilia, The Placeness, Planting Oral Songs, Arirang, Jang-taryeong(i. e. Song of Markets), Gakseoli-taryeong(i. e. Song of Beggar), Folk Song Recording Method, Children's Oral Songs, Female Folk Songs.

